

# 광주의 맛·멋·흥 어우러진 역사문화체험



광주시 동구 문화유산에서 펼쳐지는 '광주 문화재야행 동구달빛걸음'이 9~10일 열린다. 사진은 놀이패 '신명' (왼쪽)과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



## '광주 문화재야행 동구달빛걸음' 9~10일 ACC 일대에서 열려

8개 테마로 등록문화재 서석초등학교 등서 권역별 개최

달빛풍류 음악회·토크 콘서트 등 공연·투어 행사 다양

옛 전남도청 본관부터 보물 제110호 지산동 오층석탑까지. 각종 문화재에 새겨진 광주의 역사가 문화를 만나다.

야간 문화관광 프로그램 '2019 광주 문화재야행 동구달빛걸음'이 오는 9~10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옛 전남도청과 서석초등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가 주최하는 '달빛걸음'은 옛 전남도청 본관(등록문화재 제16호), 서석초등학교(등록문화재 제17호) 등 동구 곳곳의 문화유산·시설을 바탕으로 공연·체험·투어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7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시작돼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행사는 야경(夜景·야간경관), 야로(夜路·체험 행사), 야사(夜史·역사투어), 야화(夜畫·시설개방), 야설(夜設·공연), 야식(夜食·먹거리), 야시(夜市·야시장), 야숙(夜宿·숙박) 등 8개 테마로 진행되며, 권역별로 광주읍성유서 일대 '시간의 향기', 서석초등학교 일대 '근대의 향기', 5·18민주광장 일대 '오월의 향기' 등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개막 행사 '들꽃처럼 빛나는 동구'가 9일 오후 7시 30분 ACC하늘마당에서 열리며 막을 올린다. 40여분 동안 진행되는 개막 행사에서는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국악인 오정해씨 등이 참여해 길놀이, 퍼포먼스, 축하공연, 스토리투어 등을 진행한다.

역사의 흔적을 밟는 체험들이 준비된 '시간의 향기' 권역에는 오지호 화백의 '남향집' 작품을 각색한 시대거리극 '빛의 화가 오지호', 동구 곳곳의 문화재를 영상·체험으로 만나는 문화재 교실 '썩썩! 동구문화재 야학' 등이 마련된다.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을 잇는 플라자 브릿지에서는 마을 장인과 활동가의 전시·체험·판매 부스, 아트마켓, 푸

드트럭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마을 장인전'과 '마을 마켓'이 열린다.

근대 아날로그 감성을 바탕으로 기획된 '근대의 향기' 권역은 무형문화재 악기장 이춘봉씨와 화류소목장 조기종 명인이 가야금·목공예 전시, 체험, 토크 등을 마련하는 근대향기전 '무형문화재와의 특별한 만남',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근대 건축물을 주제로 만든 작품을 시민이 직접 완성하는 '문화재 컬러링 아트 체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석초 본관에서는 독립출판물, 책방지기가 선별한 책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달빛 아래 작은책방', 대형웃놀이, 팽이돌리기, 단청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달빛 전통놀이마당'이 펼쳐지며, 서석초 앞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이 국악, 포크 음악 등을 선보이는 버스킹 공연 '달빛 풍류음악회'가 열린다. 한지로 등(燈)을 만드는 체험과 '달빛소망염서' 등이 마련되는 '문화재 이야기 숲 정원'도 ACC주차장 대나무 숲, 광주읍성유서 일대에서 열린다.

'오월의 향기' 권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연계된 행사들로 꾸며져 눈길을 끈다. 놀이패 '신명'이 자치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80년 광주를 풍자·해학적 시각으로 풀어내는 마당극 '오월, 광주'를 선보인다. '문화재 별별극장'에서는 샌드아트리스트 주홍의 샌드아트 '광주다움', 류범열·임혜선 미디어아티스트의 미디어아트 '광주이야기', 최성욱 다큐멘터리 감독의 '그해 오월'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 회의실(2층)에서는 오월 광주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문화재 특색 인문학 살롱', 동구 일대의 문화재를 배우는 퀴즈쇼 '퀴즈쇼 전 문화재 골든벨'이 열린다. 페이퍼 토이, 3D 입체퍼즐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재 달빛공방'과 오월 주먹밥을 만들어보는 '한집 주먹밥집'도 문을 연다.



국악인 오정해

한편 전통한옥 '오가현'에서도 이번 행사와 연계해 9일 오후 8시 30분 미디어아트 음악, 복합장르 음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회를 기념해 '한여름 밤의 꿈'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날 행사에선 퓨전 국악그룹 '루트머지'와 소리꾼 김산옥씨가 출연, 세익스피어 희극 '한여름 밤의 꿈'을 모티브로 김삿갓, 논개가 등장하는 음악극을 공연하고 버블·풍선아트 등을 선보인다.

신사와, 청공소리 등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야행 관람객을 위해 퇴실시간을 조정, 체험권을 증정하는 '한옥스테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문화해설사와 함께 문화재를 둘러보는 '야(夜)한 탐방', 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광주를 찾는 외국인을 위한 문화재 투어 프로그램 '헬로, 문화재 야행'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은암미술관, 비움박물관 등도 개방된다. 코레일과 연계해 '내일로' 여행객에게 체험권을 증정하는 '청춘열차! 내일로 문화재야행' 행사도 함께한다. 문의 062-608-882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지역 예술계도 아이치트리엔날레 전시 중단 비난

광주비엔날레 "표현의 자유 침해"

광주미예총 "전시 중단은 예술 탄압"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과 아이치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그 이후' 기획전 중단 사태에 대한 지역 예술계의 비난 성명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아이치트리엔날레의 전시 중단 결정은 비엔날레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큐레이터의 기획의 자율성을 탄압하는 행위이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예술의 창작의도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치트리엔날레가 지속가능한 국제현대미술 전시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의 가치(可價)를 박탈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하루속히 전시를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비엔날레는 국제문화예술기관인 세계비엔날레협회(IBA)와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CIMAM)측에 성명서를 전달하면서 전 지구적이고 동시대적인 예술적 실천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미예총도 5일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은 제2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



다"며 "역사적 수치를 감추기 위한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예총은 '항일예술에는 시효가 없음'을 천명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일본의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한 단순한 처사로 결코 볼 수 없다"며 "소위 '보통국가'라는 구호 아래 행해지는 전쟁가능 국가를 만들기 위한 획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을 비롯한 예술적 탄압은 일본 정부의 민주주의 포기 선언과 같다"며 "일본은 더 이상 민주적인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예총은 "사죄와 배상이 온전히 이뤄지는 그날까지 항일 독립의 정신으로 촉박은 춤을 추며, 풍물꾼은 북을 치며, 시인은 시로, 노래하는 이는 노래로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아시아문화전당, 정보석 초청 청소년 '진로 특'

15일 영화캠프도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ACC)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ACI)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진로 특(Talk)'을 운영한다.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번 'ACC TEEN 여름방학 청소년 진로 특(Talk)'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ACC 극장2에서 '명사 초청 특강'과 '영화캠프'로 나눠 진행된다.

1부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막대막은 영애씨', 연극 '레드'에서 활약 중인 배우 정보석(사진)이 강사로 나선다. 야구선수를 꿈꾸던 청소년기부터 배우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들려줄 예정이다.



정보석

2부 'ACC TEEN 청소년 영화캠프'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영화캠프에서는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마을에 파견된 국제 구호요원들의 고군분투를 그린 '어 퍼펙트 데이(A Perfect Day)'를 관람한다(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통해 NGO(비정부단체) 활동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는 현직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번 영화캠프는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01-475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섬의 날 기념 9일 학술대회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 소재)는 제1회 섬의 날(8월 8일)을 기념해 오는 9일 오후 2시 '섬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연구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섬 살리기 방안 모색: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현, 목포대학교), '섬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방안: 연안여객선의 공영제'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주민주도의 지역

혁신을 통한 스마트 섬 구축 방안'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 신순호(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강병룡(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임영태(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윤(목포MBC 기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61-270-208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